

원주 대성암 소장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연구

최선일*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18세기 중반 오대산 진여원 중창과 |
| II.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복불상 조성 관련 스님 | |
| 장물 | IV. 맺음말 |

요약

본 논문은 오대산 진여원에 봉안하기 위해 1750년에 조성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원주 대성암 소장)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진여원의 연혁, 불상 제작에 참여한 위학과 작가 초흙과 순경 등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초흙과 순경은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승장으로 많은 작품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형 감각을 알 수 없었는데, 진여원 조성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발견됨으로써 18세기 중반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장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초흙이 수화승으로 불상을 제작한 유일한 작품인 진여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신체 비례, 의습 처리 등이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이 만든 작품과 차이가 있다. 특히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무기년명 불상인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은 각이진 얼굴, 수평으로 길게 쭉 뻗은 눈매와 일자로 얇고 곧게 솟은 낮은 원통형의 컷대, 몇 가닥으로 처리된 옷자락 등이 초흙이나 그 계보에 속한 작가에 의해 175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여원 조성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좌 바닥의 구멍을 근거로 목조불감 내에 봉안한 유물일 가능성이 있어 18세기 목조불감 연구에 주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주요단어]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초흙, 오대산, 진여원, 원주 대성암

I. 머리말

오대산은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의해 문수보살이 상주하여 현신(現身)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7세기 중반 오대산에 들어온 보천(寶川)은 중대 남쪽 진여원 터 아래에, 효명(孝明)은 북대(北臺) 남쪽 산 끝에 암자를 세워 살았다. 형제는 오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아침에 골짜기 물을 길어 차(茶)를 달여 1만 진신(眞身)의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 공양하였다.²⁾ 효명이 경주로 돌아가 왕위를 계승한 후, 705년 3월에 진여원(眞如院)을 창건하고,³⁾ 황색인 중대의 진여원 중앙에 진흙으로 빚은 문수보살의 부동상(不動像)을 봉안하고, 뒷벽에 노란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36가지로 변화하는 모양을 그려 봉안하였다. 진여원에는 복전승 5명이 낮에 『화엄경(華嚴經)』과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읽고, 밤에 문수예찬(文殊禮懺)을 염송하였다.⁴⁾

현재 진여원은 상원사의 전신(前身)으로 이해되고 있다.⁵⁾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유산기(遊山記)에 상원사와 진여원은 독립적인 사찰로 언급되어 조선전기 상원사가 왕실 원찰(願刹)로 자리잡은 이후, 조선후기 진여원이 별도의 사찰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18세기 진여원과 관련된 문헌과 유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연구는 오대산 진여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 여겨진다.

본 논문은 18세기 중반 진여원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지암종욱의 제자 여운태경(如雲泰慶)이 원불(願佛)로 모시다가 1985년에 원주 대성암 각화법륜에게 물려준 유품이다.⁶⁾ 대성암(大成庵)은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치악역(현재 廢驛) 바로 뒤에 세워진 지암불교문화재단(이사장 대석성담)에 속한 사찰이다.⁷⁾

필자는 2022년 12월 18일에 사찰의 의뢰를 받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성발원문을 비롯한 복장물(腹藏物)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불상이 오대산 진여원에 봉안하기 위해 1750년에 승려장인(이하 승장) 초흙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임이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조각승 초흙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인 오대산 진여원 조성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형태와 조성발원문을 비롯한 복장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후 불상의 봉안처인 오대산 진여원 관련 17-18세기 문헌에 관한 접근을 시도하고, 비로자나불좌상을 만든 초흙 스님의 활동을 밝힌 후, 불상 조성에 연화질로 참여한 스님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二太子到山中青蓮忽開地上. 兄太子結庵而止住, 是曰寶川庵. 向東北行六百餘步北臺南麓亦有青蓮開處, 弟太子孝明又結庵而止(『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

3) 『三國遺事』 卷3 塔像4 溟州五臺山寶叱太子傳記.

4) 黃處中基直如院中, 安泥像文殊不動, 後壁安黃地畫毗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福田五負畫讀華嚴經·六百般若, 夜念文殊禮懺稱華嚴社. 寶川庵改創華藏社, 安圖像毗盧遮那三尊及大藏經, 福田五負長門藏經, 夜念華嚴神衆, 每年設華嚴會一百日, 稱名法輪社(『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

5) …每日寅朝文殊大聖到眞如院, 今上院變現三十六種形…(『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

6) 如雲泰慶(1919.8.6-1990.8.7)은 원주 출생으로, 1933년 3월에 영월 보덕사 전호응 스님에게 득도한 후, 1938년에 월정사 강원에서 사교과 수료 및 월정사 원주로 살다가 1945년에 智庵鍾郁을 법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스님은 1948년에 원주 영천사 주지를 역임하고, 1966년에 원주 녹야원과 1974년에 원주 대안사를 창건하였다. 스님은 1990년 8월 7일(음)에 녹야원에서 세수 75세, 법랍 58세로 열반하였다. 그의 상좌는 삼진, 법종, 각화법륜, 법선, 법광, 법천 등이 있다.

7) 대성암은 1970년 7월에 삼척 성원 스님이 창건하여 1971년 6월에 안병춘 보살이 중창한 후, 1982년에 각화법륜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1985년 7월에 대웅전 일부를 증축하였다.

I.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복장물

원주 대성암에 봉안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사각감실(四角龕室) 내에 봉안되어 있다. 목조감실은 1985년 대성암으로 이운된 후 제작한 것이라 한다.

1.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높이 25.5cm, 무릎 폭 12.2cm인 조선후기에 제작된 소형불상으로(도1-4), 곧은 상반신과 머리를 곧게 세운 자세를 취하여 17-18세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중대형 불상이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와 차이가 있다. 곧게 세워 정면을 응시하는 불두佛頭는 육계의 표현이 거의 없고, 원뿔형의 나발(螺髮)을 붙여놓았다. 머리에는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없고, 정수리에 원통모양의 정상계주(頂上髻珠)만 가지고 있다. 얼굴은 넓적한 사각형이고, 가늘고 길게 뜬 눈의 눈꼬리는 약간 위로 올라갔고, 얼굴에 비해 작게 표현된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에서 강한 인상을 느낄 수 있다.

불상의 착의형식을 살펴보면, 두꺼운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고 오른쪽 어깨를 덮는 변형된 편단우견 형식으로 입고 있다. 17세기 이후 조성된 전형적인 기년명 불상에 보이는 착의 형식이 반영되어 있으나, 비로자나가지권인을 취한 자세 때문에 가슴을 가리는 승각기의 표현은 생략되었으며, 오른쪽 어깨 대의 아래 팔을 덮은 편삼 자락은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하체를 덮은 대의자락은 대좌 위까지 몇 가닥으로 늘어져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닥의 주름이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왼쪽 무릎을 따라 소매자락이 나뭇잎같이 길게 늘어져 있다. 불상의 뒷모습은 목 뒤에 접힌 옷주름 밑에서 왼쪽 어깨에서 넘어오는 대의자락이 수직으로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등 뒤에 긴 직사각형의 덮개를 끼워놓았다. 손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

불상의 연화대좌는 불상과 같은 나무에 조각하고, 연잎과 연판으로 구성된 대좌 바닥 중앙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도5).



도1.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도2. 후면



도3. 측면



도4. 측면



도5. 바닥

2. 복장물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상과 대좌가 하나의 나무에 조각되어 복장구가 없고, 등에 직사각형의 작은 뚜껑을 만들고 내부를 파낸 후 복장품을 넣을 공간을 마련하였다. 불상 내부에서 복장물은 조성발원문, 종이에 쓴 후령통, 묵서다라니가 발견되었다(도6).



도6. 목조보살좌상 복장 조사 과정(2022년 12월 16일)

표1.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발견 복장물

구분	유물명	수량	크기(세로×가로, cm)	재질	사진
1	조성발원문	1	47.5×40.0	종이	
2	종이에 쓴 후령통	1	1.4×6.5	종이, 섬유	
3	백지묵서다라니	1	42.5×38.0	종이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한 장의 백지白紙에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적힌 묵서로, 크기가 40cm×47.5cm이다. 내용은 불상 봉안한 지역과 사찰, 시주자와 연화질이 적혀있다(도7).⁸⁾

8) 조성발원문의 釋文은 필자가, 監修는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이, 翻譯은 여수 달마사 주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西嶺五臺地盧山眞如院
南無清淨法身毘盧佛新造像奉案宇

都大施主申業尙兩主	清信居士一圓兩主保體	比丘雷楫	盧彥伊兩主	崔東健兩主保體
	全淑堅兩主	全益萬兩主	全重會兩主	清信居士善圓兩主
	黃漢貴兩主	沈命發兩主	金振鏡兩主	崔必伊兩主
	金氏己巳生	咸一昌兩主	金雄先兩主	全德重兩主
	李碩長兩主	金世輝兩主	沈亘得兩主	

緣化秩

都大建立兼證師比丘 偉學 保體

持殿 彩玉

誦呪 能寬

良工 楚欽

順敬

德順

斗玉

供養主 玄悟

祖賢

印謙

供養主 眞永

法雲

海文

信有

別座 致森

書寫 自華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乾隆十五年庚午五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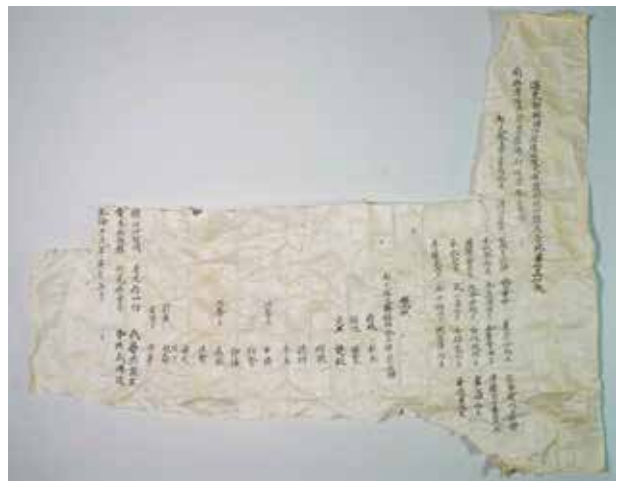
해동 조선국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서령 오
대 지로산 진여원의 나무청정법신 비로불을
새롭게 조성하여 본사에 봉안하였다.

도대시주 신업상 양주, 청신거사 일원 양주
보체, 김숙견 양주, 황한귀 양주, 김씨 기사
생, 이석장 양주, 비구 뇌즙, 김익만 양주, 심
명발 양주, 함일창 양주, 김세휘 양주, 노연
이 양주, 김중희 양주, 김진경 양주, 김웅선
양주, 심의득 양주, 최동건 양주 보체, 청신
거사 선원 양주, 최필이 양주, 김덕중 양주

연화질

도대건립 겸 증사비구 위학 보체, 지전 채
옥, 송주 능관, 양공 초흙, 순경, 덕순, 두옥,
공양주 현오, 조현, 인겸, 공양주 진영, 법운,

지 도해스님이 하였다.



도7. 조성발원문

해문, 신유, 별좌 치삼, 서사 자화

원컨데 이 공덕이 일체에 널리 퍼져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무량수 부처님을 뵈고 수기를 받고 모두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건륭15년 경오 5월 일

이외 백지에 쌓인 후령통은 1.4×6.5cm이고, 비단으로 만든 오보병을 백지로 싸고 오색실로 묶었다. 다라니의 크기는 42.5×38.5cm로, 한지에 먹으로 비밀실지(秘密悉地), 입출지(入悉地), 출실지(出悉地), 준제대명다라니(准提大明陀羅尼), 문수사리법인능소정업주(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가 적혀 있다(도8).



도8. 목서다라니

III. 18세기 중반 오대산 진여원 중창과 불상 조성 관련 스님

1. 17-18세기 진여원 관련 문헌

17-18세기 진여원에 관한 문헌은 현재 여섯 건으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후기 진여원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위치 추정과 불사 연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상원사 법당에 봉안된 목조대세지보살좌상에서 발견된 삼창기(三創記)와 조성발원문은 진여원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들 불상에 중심 인물은 환적의천(幻寂義天, 1603~1696)으로, 청허(淸虛)의 손자로 편양(鞭羊)의 제자이다.⁹⁾ 스님은 1660년(57세)에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진여원을 삼창(三創)하면서 법당과 향각(향적당)을 새로 건립하고, 1661년(58세) 7월 오대 노산(盧山, 風爐山)은 1만 진신의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지역이라 주불인 목조대세지보살좌상과 36응신도를 조성하였다.¹⁰⁾ 1661년 불상은 회감, 세정, 신언, 우현 등이 참여하고, 불화는 신겸(信兼, 信謙)이 제작하였다.¹¹⁾ 신겸은 1649년 5월에 인조장릉 조성소 화승으로 참여하고, 청주 보살사(1649년 10월), 청원 안심사(1652년 4월), 세종 비암사 괘불도(1657년)를 조성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불화승이다.¹²⁾

1677년에 송광현(宋光淵, 1638-1695)은 오대산을 유람하기 위해 진부역(珍富驛), 사미대(沙彌臺), 금강연(金剛淵), 월정사(月精寺)를 지나 신성굴을 방문하는데, 굴 위쪽에 한 칸의 정자가 있고, 환적의천이 거주하고 있다고 적어놓았다.¹³⁾ 환적의천은 진여원을 삼창한 후, 1663년에 문경 봉암사로 떠났다가 1672년(壬子) 봄에 오대산으로 돌아와 신성암(神聖庵)을 창건하였다.¹⁴⁾ 신성암 주변 신성굴 아래에 초암의 옛터는 신라 왕자가 정진수도한 곳이라 한다. 환적의천은 진여원 스님으로, 환적당을 세운 것을 보면 1677년에도 진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

9) 발원문(淸虛之孫鞭羊之子將開後人 智鏡幻寂)과 『佛祖源流』에 적혀 있다.

10) 동창발원문에 “香閣幻寂堂 大化主惠楚 眞如院 重創化主 學禪 比丘 佛相化主 學文”과 『楓溪集』 下에 “庚子年(1660) 봄에 五臺山으로 들어가서 眞如院을 중건하고 겸하여 환적암도 수리하였으며, 文殊菩薩像을 조성하여 진여원 안에 봉안하고 인하여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11) 造相大畫員 懷鑒 洗淨 神彦 又玄 士吉 / 大畫員 信兼.

12)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양사재, 2008), p. 307.

13) 直向中臺緣溪十數里到神聖窟一層巖石斗起溪上而下有小竇其上新剎一間精舍首座僧義天居之自號幻寂堂靜坐修道神彩毅然年今七十四韶光滿顏自少恒服松葉得力頗多云(宋光淵, 『泛虛亭集』 卷7 五臺山記).

14) 幻寂智鏡, 『楓溪集』 下 幻寂堂大師行狀.

던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에서 중요한 암자는 진여원(眞如院)과 신성굴(神聖窟)이고, 굴에서 십여리를 가면 화엄암(華嚴庵)이 있는데 효명이 살던 곳이라 한다. 또한 비로봉에서 중앙으로 내려온 것이 중대이고, 중대의 이름은 지로(智爐)인데, 그 위에 적멸보궁이 있다. 그 아래에 기가 뭉친 곳이 상원사이고, 절 아래에 진여원, 환적당, 화엄당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하였다.¹⁵⁾ 그후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은 1687년(62세) 10월에 오대산을 방문할 때 상원사를 거쳐 진여원(眞如院)과 그 밑에 보지도암(寶叱徒庵)을 방문하였다.¹⁶⁾ 이외 1750년에 위학이 소형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조성하였으며,¹⁷⁾ 홍순호(洪醇浩, 1766-1820)도 오대산 동구로 들어가 월정사, 금강연을 보고, 사고, 금몽암, 적멸궁, 중대, 상원암, 진여원을 참배했다는 것을 보면 19세기 초반까지 진여원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따라서 진여원은 상원사와 별도로 최소한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운영되고, 상원사와 신성암(神聖庵) 사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18세기 진여원 불사 참여 인물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750년(乾隆15) 오대산 진여원에 봉안하기 위하여 도대건립(都大建立) 겸 증명(證師) 위학(偉學)을 위해 원불(願佛)로 조성하였다. 위학은 당호가 청하당(淸河堂)으로 오대산(五臺山)에 살던 스님이다. 위학은 1742년에 포항 보경사 적광전 비로자나불도(毘盧遮那佛圖) 조성에 공양주로 참여하고,¹⁹⁾ 1750년에 평창 오대산 진여원 비로자나불좌상을 조성한 후, 1758년에 제자 우안(宇眼), 천심(天心) 등과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개금한 후, 1762년에 법당 단청과²⁰⁾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 조성에 증명으로 참여하였다.²¹⁾ 위학이 증명으로 참여한 불사(佛事)는 오대산 진여원, 여주 신륵사 등이라 스님들 간에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 毗盧峰自毗盧中落者爲中臺其名爲智爐臺上有寂滅寶宮僧言此無常享爲五臺諸佛時會之所云其下結氣處爲上元寺寺下爲眞如院幻寂堂華嚴庵(宋光淵, 『泛虛亭集』 卷7 五臺山記).

16) …與禪下眞女院院重創未久金碧輝煌又下寶叱徒庵亦無他可觀上院眞女院寶叱徒庵中坵…(丁時翰, 『山中日記』 下,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68, p.28).

17) 海東朝鮮國江原道江陵大都護府地西嶺五臺地盧山眞如院南無清淨法身毘盧佛新造像奉案字…(목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성발원문, 원주 대성암 소장).

18) 口號示崔上舍恩玉携酒 夜遊瀛閣令歌妓呼韻得星字 同諸舉人登鏡浦臺 暮歸 踰嶺 入五臺洞口月精寺金剛淵寺夜 史庫洞口史閣金夢庵寂滅宮中臺上元庵眞如院早發珍富驛踰毛老峴 芳林暮抵雲橋踰禿峙觀揭者過塘畝懷李戚東海遊奉和瀛洲使君一….

19) 乾隆七年壬戌五月日淸河縣北內延山寶鏡寺安于「證師聖續保体」誦呪戒聰保体」持殿雪湖保体」畫員秩「雷現保体」密機保体」碩岑保体」養供主秩「偉學保体」呂言保体」別座呂弘「化主雷善」都監嘉善「大夫覺信…(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자료집』, 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p.238).

20) …五臺山人偉學」慨然志重修使其弟子天心宇眼等周流八方募緣鳩材歲戊寅先改三尊之像越五年壬午又加繪」素之功前後兩役皆旁及於二殿於是蓮花古界滿帶麗水之寶氣祇樹殘陰生色龍眠之彩筆入其」堂而觀之則煥乎若西方之放光而牧懶之高風逸韻彷彿如復見於今日矣三道人經紀之功善○」女捨施之德顧不偉歟余與偉學天心有蓮社之契而宇眼則最習者也… 崇禎紀元後再丙戌五月日(여주 봉미산 신륵사 법당 중수비, 참고1). 기존 여주 신륵사 관련 모든 자료에는 중수비 건립을 비문에 적힌 시기(崇禎紀元後再丙戌五月日)인 1706년 5월로 보았지만, 비문에 언급된 스님이나 관련 인물의 활동 시기를 검토해 보면 丙戌을 한 간지 뒤인 1766년으로 보아야 한다.

21) 乾隆貳拾參年戊寅四月日「三藏會一軸京畿呂州鳳尼」山神勒寺奉安「緣化」證明宮師淸河堂大禪師「偉學」同門○○办大功德主鶴松堂」天心」助緣楓巖在淨」誦呪○虛忍察」持殿寬淳」施主秩○○「黃金大施主白蓮善女兩主保体」白淨善女保体」寬淳善女保体」寬淳善女保体」畫師比丘覺聰」比丘妙玄比丘再禪」比丘悟寬」比丘八玄」比丘惠寬」比丘最白」比丘師戒」比丘坦桂」比丘○訓」比丘碧河」比丘性暉」比丘日性」比丘行○○」比丘德贊」比丘妙心」比丘處澄」比丘弘淨」比丘悟澄」比丘○坦…(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317).

불상 제작에 관련된 스님은 지전(持殿) 채옥(彩玉),²²⁾ 송주(誦呪) 능관(能寬), 공양주(供養主) 현오(玄悟), 조현(祖賢), 인겸(印謙), 진영(眞永), 법운(法雲), 해문(海文), 신유(信有), 별좌(別座) 치삼(致森), 서사(書寫) 자화(自華)이다.

대시주자(都大施主)는 신업상(申業尙)을 포함하여 18명의 거사(一圓, 盧彥伊, 崔東健, 金淑堅, 金益萬, 金重會, 善圓, 黃漢貴, 沈命發, 金振鏡, 崔必伊, 咸一昌, 金雄先, 金德重, 李碩長, 金世輝, 沈宜得), 1명의 청신녀(金氏己巳生), 1명의 스님(雷楫)이 참여하였다.

불상은 조각승 초흙(楚欽), 순경(順敬), 덕순(德順), 두옥(斗玉)이 제작하였다. 수화승 초흙은 1740년에 속초 보광사 봉안 목조지장보살좌상(고성 화암사 안양암)을 중수하고,²³⁾ 1749년에 서울 노원구 학림사(鶴林寺) 괘불도(掛佛圖)를 조성하였으며,²⁴⁾ 1750년에 오대산 진여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제작하였다. 부화승으로 참여한 순경(順敬)은 1749년에 수화승 초흙과 서울 학림사 괘불도와 1750년에 진여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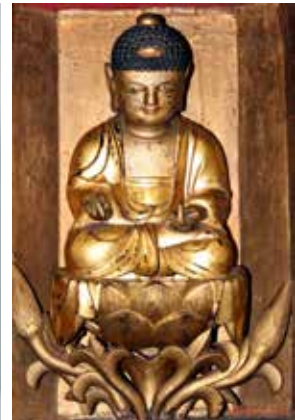
3. 1750년 진여원 제작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적 특징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신(佛身)과 연화좌(蓮花座)가 하나의 나무에 조각되었다.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교토 고려미술관과 제주 영조사 목조불감에 봉안된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불감 내 불상과 높이가 유사하다(도 9-10).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목조불감 봉안 불상과 달리 머리와 상체를 곧게 세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불두(佛頭)의 나발(螺髮)은 원뿔형으로 육계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색난과 단응이 제작한 목조불상과 같이 정수리에 낮은 원통모양의 정상계주(頂上髻珠)를 가지고 있지만, 이마 위에 중간계주(中間髻珠)는 생략되었다. 얼굴은 넓적한 사각형에 가늘고 길게 뜬 눈의 눈꼬리는 약간 위로 올라갔고, 얼굴에 비해 작게 표현된 가는 원통형



도9. 초흙,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750년, 원주 대성암



도10. 색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89년, 교토 고려미술관

22) 1780년에 강원도 삼척 영은사에 건립된 靈谷堂大禪師浮屠碑 후면에 “上佐通政敏燁 判事戒封 師弟 嘉善彩玉 判事弘允 楓岩堂侑心 八悟 等幻 受戒了能 謂定 謂悅 處士妹信 曾孫會全”의 명문을 통해 彩玉이 靈谷開慧의 법맥을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평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공양시주로 참여하였다(乾隆十四年己卯二月二十七日京畿「右道加平西嶺雲岳山懸燈寺阿彌」施佛改金與後佛彌陀會一部造」成安于茲山是寺…供養大施主 玄揖」供養施主 彩玉…，書記 참조).

23) …證明登微」點火玉明」畫員草安」歲次甲午八月二十九日金剛山安養庵安于」願文」偉哉甲午秋八月新造地藏尊像而今經八十餘年之間比丘」頓輝偶然發源補缺重修兩載經營敦請良工今已畢工仍以」伏願檀越等與同參有緣證觀畫工化師知事各」等以此功德」共證無生之玄理遊戲菩提之場中亦願普利群生咸登彼岸得不退轉之大願」施主秩」大施主崔大徵」比丘釋能」泰仁」草閑」李與寬」山中老德萬嘗」執剛恕暉」正憲」緣化秩」證明秋淨」畫工楚欽」豐捧」持殿聖朋」化師頓輝」供養主自益」別座自敬」乾隆伍年庚申三月二十七日願文(속초 보광사 봉안 목조지장보살좌상 발견 발원문, 최선일, 「속초 普光寺 〈목조지장보살좌상〉과彫刻僧 草安」,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12, pp.83-109.

24) 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①①①①壽千秋」緣化秩」證師比丘敏機」誦呪比丘法熙」持殿比丘快彦」畫師比丘楚欽」比丘七惠」比丘泰云」比丘順敬」比丘德淳」比丘是明」比丘印位」比丘性云」①①比丘崔聖」比丘清洽」高海元」比丘寶鑑」①憲」①蜜(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서울특별시 자료집』,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p.112). 학림사 괘불도는 1749년(乾隆十四年己巳八月初〇日…)에 조성된 후, 1774년(乾隆三十九年甲午三月二十一日)靈山頓重修安圓通菴…)에 중수되었다.

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에서 강한 인상을 느낄 수 있다.

불상의 착의형식을 살펴보면, 두꺼운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고 오른쪽 어깨를 덮는 변형된 형식이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의 옷주름은 짧게 늘어지고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팔꿈치 뒤로 넘어가고, 왼쪽 어깨를 덮은 대의는 수직으로 내려오다 배부분에서 오른쪽 팔꿈치에서 넘어온 편삼 자락과 U자형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루고 있다. 하체를 덮은 대의자락은 대좌 위까지 몇 가락 주름으로 펼쳐지고, 왼쪽 무릎 위에 나뭇잎 모양의 소매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불상의 뒷모습은 목 뒤에 접힌 옷주름 밑에서 왼쪽 어깨에서 넘어오는 대의자락이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불신과 같이 제작된 연화대좌는 연잎으로 둘러 있고, 바닥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어 연화가지에 끼워 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1689년에 조각승 색난이 만든 교토 고려미술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이나 목조지장보살삼존불감 내 본존 같이 불감 바닥에 꽂아 봉안했던 것으로 보인다(도11-12).²⁵⁾

그리고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불상 가운데 월정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된 목조여래좌상이나 목조보살좌상은 얼굴의 인상이나 착의법 및 대좌 처리 등에서 1750년대 승장 초흙이나 그 계보 스님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도13-14).



도11. 초흙,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750년, 원주 대성암



도12. 색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89년, 교토 고려미술관



도13. 목조여래좌상,
월정사 정보박물관



도14. 목조보살좌상,
월정사 정보박물관

IV. 맺음말

본 논문은 오대산 진여원에 봉안하기 위해 1750년에 조성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원주 대성암 소장)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진여원의 연혁, 불상 제작에 참여한 위학과 작가 초흙과 순경 등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특히, 초흙과 순경은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승장으로 많은 작품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형 감각을 알 수 없었는데, 진여원 조성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발견됨으로써 18세기 중반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장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초흙이 수화승으로 불상을 제작한 유일한 작품인 진여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 신체 비례, 의습 처

25) 최선일,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후기 목조삼존불감」,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pp.137-155.

리 등이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이 만든 작품과 차이가 있다. 특히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무기년명 불상인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은 각이진 얼굴, 수평으로 길게 쭉 뻗은 눈매와 일자로 얇고 곧게 솟은 낮은 원통형의 콧대, 몇 가닥으로 처리된 옷자락 등이 초흙이나 그 계보에 속한 작가에 의해 175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여원 조성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좌 바닥의 구멍을 근거로 목조불감 내에 봉안한 유물일 가능성이 있어 18세기 목조불감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참고. 진여원과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관련 문헌

1. 송광연(1638-1695), 『범허정집泛虛亭集』 오대산기五臺山記

[1677년] 9월 7일 병술 맑음, 저녁에 비가 내렸다. 아침을 일찍 먹고 진부역珍富驛에서 월정사月精寺로 들어갔다. 30여리쯤 가니 월정사 입구의 사미대沙彌臺와 금강연金剛淵이 있는데 모두 승지이다. 금강연이 최고의 절경이다. 반석은 닳아서 은빛 폭포가 옆으로 흐른다. 말에서 내려 서성이며 세속의 명리 등을 탐하고 마음을 깨끗이 다 정리하였다. 잠깐 있으니 월정사 스님들이 가마를 가져와서 영접하였다. 절의 승려 경열慶悅, 운제雲際 등이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 절은 동대 아래에 있다. 계곡의 입구로 들어가는 문은 그윽하고 깊었다. 산과 물은 빙빙 휩싸여 돌고 여러 층의 집은 서로 잇달아 있는 정자 같다. 금빛의 부처님과 푸른 단청 등 모든 것이 새롭다. 참으로 관동의 큰 사찰이다. 칠불보전七佛寶殿은 일곱 분의 부처님 상이 있다. 기타 시왕전, 나한당 안의 불상들은 아름다움을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전각들은 모두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 사치가 극에 달하고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당시의 물력을 상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천백여년이 지났다. 조금도 기울거나 무너진 곳이 없어서 그 제작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

사중에 광묘(세조)가 친히 행차하여 이 도량에 금첩을 내린 것이 있는데 동행한 종신들의 명부이다. 거기에는 나의 6대조 여산군礪山君의 내용도 있어서 손을 씻고 두 손으로 받들고 읽었는데 옛날 일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또 비해당匪懈堂(안평대군)의 친필 병풍이 있는데 7첩을 나쁜 사람이 훔쳐 가서 실제의 유물은 3첩 뿐이다. 진실로 애석하다. 승려가 말했다. “하늘의 해가 맑고 명랑합니다. 보궁의 대에 오르기는 오래지 않아 비가 올 징조라고 말했다.”

가마[藍輿]를 재촉하며 곧바로 중대로 갔다. 계곡에서 십 수리의 신성굴에 도착했는데, 일층은 암석이고, 계곡 위에는 험악하게 빼죽빼죽 솟은 돌이 있고, 아래에는 작은 구멍(쪽문)이 있고, 그 위에 한 칸의 정자를 새로 창건하였다. 수좌승 의천義天이 사는 곳으로, 스님은 자호가 환적당幻寂堂인데 고요히 앉아서 도를 닦았다. 신과 같은 풍채는 의연하였고, 금년에 74세인데 얼굴에 봄별 같은 광채가 가득하였다. 스스로 젊었을 때부터 술임을 항상 복용하여 많은 힘을 얻었다. 또 스스로 선산善山의 가문이고, 이백 종가의 여러 사람들과 서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승려들이 다 말했다. 우리는 본래 선산의 대가족이고, 출가한 승려를 위하여 그 뜻을 실천하는데 또 일반 승려들과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문도 식번이 학업에 뜻을 두었는데 쉽게 이루었다.

산내의 여러 암자를 다소 지었는데, 진여원眞如院과 신성굴神聖窟이 최고로 이름난 암자이다. 굴 아래에 또 초암의 옛터가 있었는데 신라 왕자가 정신수도했던 곳이다. 모두 문도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였는데 하나하나 관부에서 사액한 절이다. 또 십여리를 더 가면 화

엄암華嚴庵에 이르는데, 여기는 신라 성덕왕 효명이 절(空門)에 있을 때 살던 곳이다.

환적당幻寂堂은 진여원의 스님인데 진여원을 중건하고 환적당을 지었다. 그 아래에 작은 개천가에는 도호(道號)를 주계珠戒라고 하는 수좌승이 산다. 바로 상원사에 도착하였다. 상원사上元寺는 중대의 정맥正脉에 있다. 지극히 크고 사치로운데도 절제되어 있는데, 성화成化 연간에 국가의 내탕금을 출자하여 우리 조선의 원당으로 삼고 지었기 때문이다. 종각에는 괴애乖崖와 백헌白軒의 두 재상이 쓴 서기가 걸려 있다. 의규義珪, 삼인三印, 성허性虛 세 분의 수좌가 절에 있었는데 3인 수좌가 산에서 내려와서 맞이하였다. 성허性虛는 나이가 이제 30여세인데 매우 총명하고 도리를 알아서 비로소 서로 대화할만 하였다. 조금 쉬고 중대를 오르는데 가마가 갈 수 없는 곳이라서 걸어서 산비탈을 올랐다. 다릿심이 거의 풀려서 부득이 다시 한층 위로 올랐는데 분명히 다리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짐을 지고 그곳을 다녔다.

가까스로 중대에 올라 적멸보궁에 앉아 오대산의 진면목이 눈앞에 역역하다. 태백산과 소백산이 구름 사이에 손으로 가르켜 눈으로 자유롭게 품으며 헤엄치니 띠끌 세상을 벗어난 풍취를 황홀하도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오려는지 눈꽃이 나부끼며 뿔뿔 날리어 원망하며 하산하여 상원사로 돌아와 잤다. 천지조화는 미묘하다.

현판 서기의 시문은 모사하기가 어려웠다. 산천의 대단한 기세를 중대가 끌어당긴다는 이론이 있다. 설악산의 한 지맥이 바다 위의 남쪽으로 달리다가 특별히 명주의 서쪽으로 일으켜서 비로봉을 만들었다. 비로봉에서 중앙으로 내려온 것이 중대이다. 중대의 이름은 지로智爐인데, 그 위에 적멸보궁이 있다. 승려는 말했다. “이곳은 영원히 향화를 받는 오대의 여러 부처님들이 시간마다 모이는 장소이다.” 그 아래에 기가 뭉친 곳이 상원사이고, 절 아래에 진여원, 환적당, 화엄당이다. 보궁의 오른쪽은 금몽암金夢庵인데 자연自彦 수좌가 사는데, 보궁에 부처님을 모시는 소임이다. 금몽암 아래에 사자암인데 승려가 없어서 장차 폐허가 된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다. 비로봉으로부터 왼쪽으로 돌면 북대인데 그 이름은 상왕대象王臺라고 한다. 그 아래에 고운암孤雲庵이 있는데 성영성英 수좌가 산다. 그 아래에 상두암象頭庵, 자시암慈施庵인데 육화六和 수좌가 산다. 그 아래에 신성굴이고, 그 아래에 신라의 왕자가 정신이 수도한 옛터가 있다.

북대로부터 동쪽으로 달리면 동대인데 그 이름은 만월대滿月臺이다. 그 아래 동관음암東觀音庵인데 종택宗擇 수좌가 산다. 동대로부터 남쪽에 월정사月精寺를 지었다. 그 아래에 종봉암鍾峰庵이 있는데 도영道英 수좌가 산다.

비로봉으로부터 왼쪽으로 돌면 서대西臺인데 그 이름은 장령대長嶺臺이다. 그 아래 서쪽에 수정암水晶庵이 있는데 청오淸晤 수좌가 산다. 서대로부터 남으로 달리면 남대인데, 그 이름은 기린대麒麟臺이다. 그 아래에 사고각史庫閣이 있고, 사고각 옆에 영감사靈鑑寺이다. 이어서 남관음南觀音, 지장地藏, 보현普賢, 금강金剛 등의 여러 암자가 있다

사고각의 상하를 근본적으로 펼쳐놓으면 오대산의 안쪽으로 흐르는 물과 남대 밖으로 흐르는 물이 만나서 월정사의 수구(水口)가 된다. 금강연과 사이대를 만들고 후진하여 영월에 이르고, 한 줄기는 북진하여 청풍에 이르고, 금천 서쪽으로 흘러 한강물[漢水]가 된다. 그 서대 북쪽으로 나오는 물이 우통수(于筒水)이다. 서북대 바깥물은 주천현으로 흘러 간다. 동대 바깥 물(外面水)은 청학동이고,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그 나머지는 다 기록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빌려 썼던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십 수리를 걸어서 내려왔다. 사고각은 두 구역이 있다. 2층은 두 칸인데 조선 역대 왕릉의 옥패를 봉안하는 곳이다. 아래의 네 칸은

금궐을 비밀히 간직하는 집이다. 한 번 울타리(담장)로 감싸고 울타리 밖에 영감사靈鑑寺이다. 승려들이 들어오는 사람을 기록하여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곧 바로 전한다. 영감사의 오른쪽 건물은 관가 소유의 건물인데, 이 비밀 사고각을 옮기거나 받드는 일을 한다. 또한 말과 수레, 관과 일산, 즉 왕족이 잠시 머무는 곳인데, 이것은 지금 봄에 새로 창건한 곳이다. 바로 아래가 월정사이다. 길에서 점심을 해 먹고 오대산을 둘러보며 일어나서 횡계역에서 잤는데 40리이다. 병진년 가을에 적다.²⁶⁾

2. 1766년 여주봉미산신록사법당중수비(前面)²⁷⁾

驪州鳳尾山神勒寺法堂重修碑

昔牧隱李先生居驪水之南涯常與懶翁會神勒寺之法堂談經賦詩以為樂此韓公與太顛故事也」今去先生之世將四百年江山寂寞文藻淒涼而是堂也歷滄桑經風雨亦非復昔日之顏色矣諸佛」之金像剝落四壁之丹牘漫漶風流之士徘徊登眺莫不有曠世之感況釋子之心乎五臺山人偉學」慨然志重修使其弟子天心字眼等周流八方募緣鳩材歲戊寅先改三尊之像越五年壬午又加繪」素之功前後兩役皆旁及於二殿於是蓮花古界滿帶麗水之寶氣祇樹殘陰生色龍眠之彩筆入其」堂而觀之則煥乎若西方之放光而牧懶之高風逸韻彷彿如復見於今日矣三道人經紀之功善力」女捨施之德顧不偉歟余因偉學天心有蓮社之契而字眼則最習者也是役之訖眼師具石請記其」事余不得辭所以樂自附於先生之後也若夫福田之說非余之所敢言云」平城林配堊撰」驪興閔湊書」海平後人通德郎尹猗

側面

施主兼片手丹陽人張萬世」訓練判官李尙允」通政韓惡只」尹蕊芗」尹後卜」引勸大施主李貴男」改金丹青外監○○」別座龍溪堂覺心」改金丹青立石化主松風堂字眼」嘉善吳有尙」持殿和爭堂大玄」通政辛霜梁」金武述」比丘道玉」同知中樞府事李江雙」妻金氏庚辰生」崇禎紀元後再丙戌²⁸⁾五月日立」助役石手比丘漢忍」

여주 봉미산 신록사 법당 중수비

옛날 목은 이색선생께서 생전에 사시던 곳이다. 여강의 물이 남쪽 벼랑으로 항상 흐르는 것을 나옹스님은 알 것이다. 신록사 법당은 경전을 담론하고 시를 짓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이것은 한퇴지와 태전선사의 고사와 같다. 지금은 목은선생이 가신지 400년인지라 강산은 적막하고 문화가 처량한 것은 이 법당이다.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하는 세월을 지나고 비바람을 거치니, 또한 옛날의 안색은 다시 볼 수 없구나. 모든 부처님의 금은 벗겨지고 모든 벽의 단청은 다 떨어져 분간하지 못할 정도이다. 풍류지사가 누각에 올라 바라보니, 황폐한 감정에 울컥하는데 하물며 스님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오대산인 위학스님이 몹시 슬퍼하여 중수의 뜻을 세워 그의 제자 천심, 우안 등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모연을 하고 재물을 모았다. 무인년(1758)에 먼저 삼존불상에 금을 입히는 개금불사를 하고, 5년이 지난 임오년(1762)에 또 회를 바르고 채색하였다. 앞뒤의 개금과 채

26) 한국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r/main.do>) 원문을 참조하고, 번역은 여수 달마사 주지 도해스님이 하였다.

27) 비문의 탈초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최선일, 감수는 송광사 정보박물관장 고경 스님, 번역은 여수 달마사 주지 도해스님이 하였다.

28) 崇禎紀元後再丙戌은 1706년이지만 관련 인물을 검토하면 건립 시기는 한 간지 뒤인 1766년이어야 한다.

색(단청)의 두 일을 모두 도왔다. 두 전각과 연화세계를 여강이 감싸 안았다. 기원정사의 보배로운 기운으로 그늘(어둠, 폐허)을 없애고 체면을 차리게 되었다. 부처님과 법당의 채색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서방정토의 방광이 목은과 나옹의 고풍의 편안한 정취는 서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음을 오늘 보게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의 오랜 세월 동안 훌륭한 공적은 여자들이 희사한 시주의 힘이다. 그러한 공덕을 돌아보니,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하다. 나와 위학, 천심은 불사를 위한 같은 계원이고, 우안은 최고의 능력자이다. 이 모든 불사를 경영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우안이 예를 갖추어 비석에 새길 내용의 기를 청하기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즐겁게 스스로 선생의 뒤를 더 보태었다. 그러나 복전에 대한 설법은 내가 감히 말할 수는 없다.

평성 임배후²⁹⁾가 짓고

여흥 민진이 쓰다.

평해후인 통덕랑 윤의

3. 20세기 전반 오대산 사찰의 불교조각

1920년 전후 재산대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관보 제1510호 3-4면 (1932년 1월 22일)				
사찰명	불교조각	재질	수량	불교조각	수량	재질	상태	규격
月精寺	毘盧遮那佛	金木	1	毘盧遮那佛	1	木製塗金	坐像	高 3尺2寸
	阿彌陀佛	〃	1	阿彌陀佛	1	同	同	同
	文殊菩薩	〃	1	文殊菩薩	1	同	同	同
	普賢 〃	〃	1	普賢菩薩	1	同	同	同
	觀世音 〃	〃	1	觀世音菩薩	1	同	同	同
	地藏 〃	〃	1	地藏菩薩	1	同	同	同
	大勢至 〃	〃	1	大勢至菩薩	1	同	同	同
	釋迦牟尼佛	〃	1	釋迦牟尼佛	1	同	同	同 2尺4寸
	彌勒菩薩	〃	1	彌勒菩薩	1	同	同	同 1尺
	竭羅 〃	〃	1	竭羅菩薩	1	木製塗粉	同	同 1尺9寸
	羅漢像	〃	1	羅漢	16	同	同	
	般第尊者	〃	16	使者	2	同	立像	同 1尺5寸
	六手觀音菩薩	金木	1	那畔尊者	1	同	坐像	同 1尺
	藥王菩薩	石	1	觀世音菩薩	1	木製塗金	坐像	同 1척3촌
				藥王菩薩	1	石製	同	同 6척
			觀世音菩薩	1	木製塗金	坐製	同 1尺2寸	
觀音庵	觀音菩薩	金木	1	관세음보살	1	목제도금	坐像	高 1척5촌
念佛庵	大勢至菩薩	金木	1	대세지보살	1	목제도금	坐像	高 7촌
象王庵	彌勒菩薩	金木	1	미륵보살	1	목제도금	坐像	高 7촌
上院寺	文殊菩薩	金木	1	文殊菩薩	1	木製塗金	坐像	同 3尺8寸
	童眞 〃	粉木	1	童眞菩薩	1	同	同	同 1尺2寸
	釋迦如來	〃	1	釋迦牟尼佛	1	同	坐像	同 1尺7寸

29) 임배후林配厚는 1718~1784, 자는 伯厚 호는 龍村이다

	文殊童子	金木	4	文殊童子	1	同	同	同 3尺3寸
				同	3	木製塗粉	立像	同 1尺5寸
	彌勒菩薩	粉木	1	彌勒菩薩	1	同	同	同 1尺4寸
	竭羅 "	粉木	1	竭羅菩薩	1	同	同	同
	羅漢	粉木	16	羅漢	16	同	同	同 1尺5寸
	阿彌陀佛	金木	1	阿彌陀佛	1	木製塗金	同	同 1尺3寸
獅子庵	毘盧遮那佛	金木	1	毘盧遮那佛	1	木製塗金	坐像	高 1尺7寸
靈鑑寺	觀音菩薩	金木	1	觀世音菩薩	1	木製塗金	坐像	高 1尺7寸
極樂庵	阿彌陀佛		1位	※상원사 불상 목록은 좌측 재산대장에 맞춰 순서 바꿈				
1920년 전후 재산대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관보 제1510호 8면 (1932년 1월 22일)				
禁夢庵 (寧越)				毘盧遮那佛	1	木製塗金	坐像	高 9寸

【참고문헌】

문헌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발견 조성발원문(1750년)

『佛祖源流』

『三國遺事』

宋光淵, 『泛虛亭集』 五臺山記

驪州鳳尾山神勒寺法堂重修碑(1766년)

月精寺本末財産臺帳(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丁時翰, 『山中日記』, 延世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68(影印).

朝鮮總督府 官報

眞知院三重創發願文(1660년)

洪醇浩, 『半蒼私稿』, 원주시, 2021(影印).

도록

『연꽃가지를 들다. 華嚴』, 월정사정보박물관, 2014.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자료집』, 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광역시/경기도 자료집』,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저서

김현준, 『전통사찰총서-강원도1』, 사찰문화연구원, 1992.

안귀숙·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 양사재, 2008.

정시한 著, 신대현 譯, 『산중일기 : 17세기 선비의 우리 사찰 순례기』, 혜안, 2005.

知庵和尚門徒會 編, 『李鍾郁全集① 知庵和尚評傳』, 三藏苑, 1991.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 - 佛教彫塑』, 양사재, 2007.

----- 外, 『속초 보광사의 문화유산』, 온샘, 2019.

논문

손영문, 「朝鮮 後期 木造阿彌陀如來三尊 佛龕과 阿彌陀如來七尊 佛龕 考察」, 『佛教美術』 30, 동국대학교 박물관, 2019.

최선일, 「속초 普光寺 〈목조지장보살좌상〉과 彫刻僧 草安」, 『미술사학연구』 9, 한국미술사학회, 2012.

-----,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후기 목조삼존불감」,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 「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 樣式의 변천」, 『美術史學研究』 261, 한국미술사학회, 2009.

기타

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r/main.do>)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찰 재산대장

(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www.museum.go.kr/dryplate/main.do)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총독부 관보(<http://gb.nl.go.kr>)

【Abstract】

A Study on the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of
Daeseongam Hermitage, Wonju

Choi, Sun-il
(Northeast Asia Buddhist Art Institut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Jinnyeo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ctivities of Wihak, the monk sculptor, and Choheum and Sungyeong,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statue, focusing on the wooden Vairocana Buddha statue (enshrined at Wonju Daeseongam), which was created in 1750 to be dedicated to Jinnyeowon in Odaesan Mountain.

In particular, ChoHeum and Sungyeong were active in the mid-18th century, and there were not many works and records left, so they did not know the specific sense of form. The discovery of the statue of Jin Yeo-won's wooden Vairocana Buddha statue was able to reveal a craftsman who was active in Gangwon-do in the mid-18th century. The Wooden Vairocana Buddha statue of Jinyeowon, the only work in which Choheum produced a Buddha statue as a leader, differs from works by sculptors active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in the impression of the head, body proportions, and wearing robe.

In particular, the wooden Buddha statue of unknown date and the wooden Bodhisattva statue housed in the Museum at Woljeongsa Temple, with its angular face, horizontally elongated eyes, low cylindrical nose bridge that rises straight and thin, and the a few cloths, can be seen as having been made in the 1750s by a monk sculptors in the lineage. In addition, the wooden statue of the Buddha statue created by Jinyeowon is likely to be a relic enshrined in the wooden Buddha based on the hole in the floor of the pedestal, so it can be seen as a major data for the study of the wooden Buddha in the 18th century.

[key word] wooden Vairocana Buddha statue, ChoHeum, Odaesan Mountain, Jinyeowon,
Daeseongam hermitage

투고(접수)일 2023.09.06. 심사개시일 2023.11.11. 심사완료일 2023.12.06. 게재확정일 2023.12.07.